

정부 전방위 상생 압박에 금융권 ‘좌불안석’

정책펀드 참여·교육세율 인상까지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부담

대부업체 재원 부담금 등 진통 예상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채 탕감부터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참여, 교육세율 인상까지 금융권을 향한 정부의 ‘상생’ 압박이 커지면서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은행권은 사회 환원을 하면서도 건전성은 유지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고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2금융권에서는 “여력이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어서 재원 분담 과정 등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쏟아지는 정책 과제 속 금융권에 쏠리는 눈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배드뱅크’ 설립과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 펀드, 금융·보험회사 교육세율 인상까지 금융권에 이른바 ‘상생’을 요구하는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자 수익으로 역대 최고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은행들은 이러한 사회 환원 압박을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권은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에 관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보험업권도 대형 금융·보험사의 매출액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한다는 방안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과세표준(과표) 구간 및 세율조정, 수익종류에 따른 차등세율 적용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부실 관리 급급한 2금융권 “우리는 왜”…대부업체, 채권 매입가를 두고 반발

은행들과 달리 ‘역대급 실적’과는 거리가 먼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사 등은 반발이 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등의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같이 부담을 요구받는 데 불만이 나온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상생 금융의 전제는 금융권이 과도한 마진을 거두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1금융권 이야기”라면서 “저축은행 등은 1금융권보다 큰 리스크를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 상황인 만큼 그에 따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도 사정은 비슷하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기관이 작년보다도 실적이 더 악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총당금

적립을 강화 등 건전성 요건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벅찬 지점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드뱅크를 통해 소각하는 대상인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어서 2금융권도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는 분위기다.

다만 부실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대부업체에서 배드뱅크의 채권 매입가를 두고 이견을 내는 등 구체적인 재원 분담금과 채권 매입가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배드뱅크는 연체 7년 이상의 부실 채권을 일괄적으로 5% 가격에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대부업체는 보유한 연체 7년 이상 채권의 매입가가 최소 액면가의 25% 이상인데도 이를 5%에 매각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투데이경제



NH농협은행 광주본부 ‘금융교실’ 운영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10일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체험형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가족경제 금융교실’을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시교육청 시민협치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됐으며 농협광주본부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진행됐다.

교육은 저축, 소비, 용돈관리 등 일상 속 금융 지식을 비롯해, 은행업무 체험활동으로 구성되고 참가자들은 직접 은행원이 돼 고객 응대, 통장 개설, CD/ATM 기기 이용 등을 실습하며 실질적인 금융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또한 NH농협은행 대학생봉사단 ‘N돌핀’ 13기가 교육에 참여해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도왔으며 현장에서는 쌀국수, 쌀도넛 등 국산 쌀을 활용한 간편 스낵이 제공돼 ‘우리 쌀 소비 촉진’이라는 사회적 가치도 함께 전했다. /안태호 기자

전남우정청, 해남전복 어가돕기 특별전

전남지방우정청은 10일 “11일부터 전남도, 해남군과 함께 해남전복 온라인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우체국쇼핑 ‘해남전복 어가 돕기 특별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복 소비 감소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해남전복 어가에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기획됐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전남도·해남군과 협업해 11일부터 우체국쇼핑몰(<https://mall.epost.go.kr>)을 통해 해남군 전복 판매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해양수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해남군 쿠폰 지원으로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받아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이동성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전복 소비 감소로 어려움이 있는 전복 생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전남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민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익적 역할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햇고구마 맛보세요”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은 달콤한 영양 간식 햇고구마를 처음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올해 가을 처음 출하된 ‘햇고구마’가 판매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학개미 덕에 상반기 배당소득 흑자 ‘역대 최대’

1년 새 88% ↑ …증권투자 등 호조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배당소득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배당소득수지는 약 105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약 56억1천만달러)보다 88.1%나 뛰었으며, 국제수지 통계 집계가 시작된 지난 1980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배당소득수지는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1년 흑자 전환한 뒤 5년째 흑자를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배당소득수입은 작년 상반기보다 15.5% 늘어난 239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배당수입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직접투자 배당수입은 작년 상반기보다 11.3% 늘어난 115억8천만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바이든 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영향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시설 투자를 늘렸고 실제로 호조를 나타내면서 배당수입이

증가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투자자들의 주식·채권 거래 위주인 증권투자 배당수입은 88억7천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3.3% 증가했다.

증권투자 배당수입은 2016년부터 10년 연속 증가했으며, 상반기 기준으로 9년째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 몇년 간 이어진 ‘서학개미’(미국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열풍 등으로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채권 투자 잔액이 불어난 영향이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1184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14 16 23 25 31 37 / 보너스 42		
1등	1,910,655,600	6개 숫자 일치
2등	50,280,411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533,432	5개 숫자 일치
4등	50,000	4개 숫자 일치
5등	5,000	3개 숫자 일치

농협전남검사국, 폭염 안전관리 점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전남검사국은 10일 “지난 8일 영암축산농협 섬유질사료공장에서 경영책임자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사업장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운영질환과 사업장 밀폐공간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종사 직원들의 작업방식 등을 살펴보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과 현장 위험요인을 체크해 현장감독자가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편지형 농협 전남검사국장은 “작은 방심이 재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 종사자, 고객 모두가 안전하게 농·축협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위험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